

## 가정용 에어컨시장 에너지효율 경쟁 ‘뜨겁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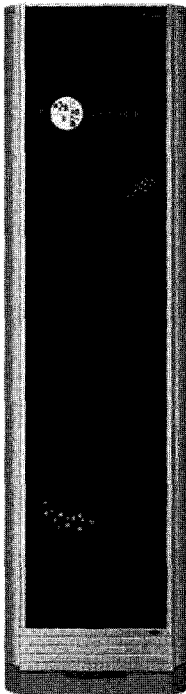
공간감지센서 인체감지로봇 냉방능력이변형 등 첨단기술 에너지효율 경쟁

여름철 성수기를 맞은 에어컨시장이 에너지효율 경쟁으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녹색성장과 고유가의 여파에 따라 에너지절약형 제품으로 이를 슬기롭게 대처하려는 소비자들이 에어컨 선택의 기준으로 ‘에너지고효율 제품’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8일 에너지관리공단과 에어컨업체에 따르면 국내 에어컨의 에너지효율은 정부의 에너지효율관리정책과 생산업체들의 노력에 따라 지난 1996년부터 지난해까지 21% 상승했다.

여기에 최근 에어컨 제작업체에서는 기본적인 에너지효율 향상과 인체에 최적냉방을 제공하고, 불필요한 에너지소비를 줄이는 첨단 기술을 추가해 냉방효율성은 높이는 한편 에너지소비는 줄일 수 있는 제품을 내놓고 있다.



LG전자가 올해 선보인 2세대 ‘휘센’은 인원과 거리에 따라 바람 방향과 세기를 자동 조절하는 인체 감지 로봇 기능을 적용해 냉방 속도를 높이고 소비 전력은 55%가량 줄였다.

특히 이 회사는 기존의 공간 냉난방 운전은 물론이고 바닥 난방과 운수용 급탕까지 가능케 하는 지열히트펌프 ‘하이브리드 지오’를 선보이고 있다.

아울러 LG전자는 높은 에너지효율로 연간 에너지 소비량을 20% 가량 절감할 수 있는 ‘멀티브이슈퍼 III’ 제품도 준비했다. 공기열원을 이용해

고효율 냉난방을 가능케 하는 ‘멀티브이’ 제품 시리즈는 최근 유럽에서 공기열원을 사용한 냉난방 제품을 신재생 에너지 제품으로 인정함에 따라, 차세대 신재생 에너지 제품으로 주목 받고 있다.

삼성전자는 ‘하우젠’에 공간감지 적외선 센서를 설치해 전기료를 최대 84.5%까지 절감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전면 패널에 ‘쿨아이(Cool eye)’라는 적외선 센서를 채용해, 실내 공간을 6구역으로 나눠 2m내의 근거리에서 열원이 감지되었을 때는 강풍을, 2m이상의 원거리에는 강력한 냉방을 보내준다. ‘쿨아이’ 적용 제품의 경우, 일반제품에 비해 냉방속도는 2배, 전기료는 60%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

올해 도입된 ‘스마트 인버터’ 기능은 냉방부하에 따라 최대 160%에서 최소 10%까지 출력을 조절해 빠르게 냉방하면서도 전력소모를 최소화 하는 쾌적 및 절전기능을 탑재하고 있다.

올해들어 가정용 에어컨시장 전격 진입을 발표한 귀뚜라미범양냉방도 에너지효율을 앞세워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귀뚜라미 거꾸로 송풍형 에어컨은 냉방능력 가변형 시스템을 적용해 에너지절약형 다단계 용량제어로 일반 정속형 대비 30%이상 에너지 절감이 가능하다. 고효율 시로코 팬이 실내온도 분포를 최적화 및 유지시킬 뿐 아니라, 소음이 없어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며, 히트펌프 사이클 구현시 냉매량을 미세 제어 할 수 있어 최적의 사이클을 구현한다는 것이 이 회사 관계자의 설명이다.

한 에어컨업체 관계자는 “국제 에너지효율기준에 맞추고 국내 에어컨 구매자들의 에너지효율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에너지절감 기술을 적용한 제품 출시가 이어지고 있다”며 “고유가와 녹색성장 트렌드에 따라 에어컨 업체에서 에너지고효율이라는 테마는 한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